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3월 16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5명, 양성평등한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중요하다’고 생각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3월 16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3156-7296 /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조선희 선임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08 / 이메일: sjcho@kwdi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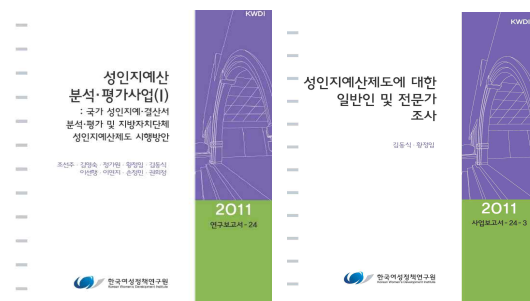
<2011 연구보고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 연구책임자 : 조선희 선임연구위원

◎ 분야 :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2011년 전국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지역·성·연령대별 비례할당표본 추출)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양성평등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1년 6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지역·성·연령대별 비례할당표본추출)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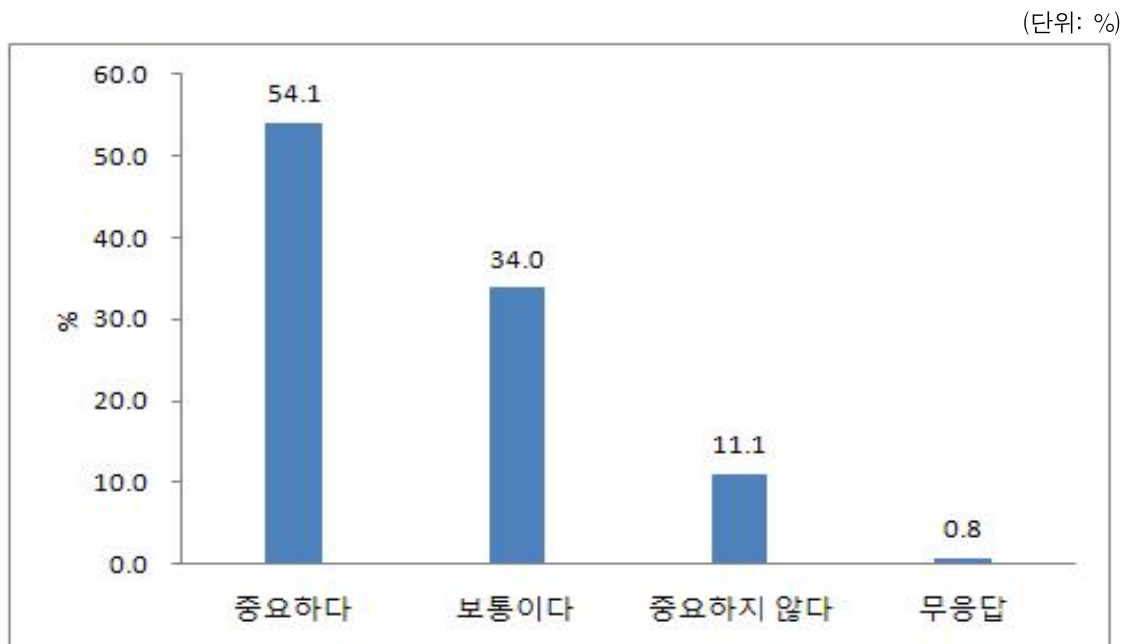
구 분	일반인 조사	전문가 조사
모집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성인지정책 분야 전문가
표본크기	● 1,500명	● 123명
표본추출	●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조사지점 선정) ●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직업별 비례할당표본추출 (응답자 선정)	● 재정학회 회원 및 여성가족부 성인지전문가 pool 활용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 (Personal Interview)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 2011. 5. 17 - 6. 13	● 2011. 5. 20 - 6. 14

국민 10명 중 5명
양성평등한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중요하다' 고 생각

□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양성평등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54.1%는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이와 달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1.1%이었으며, '보통이다'는 34.0% 그리고 나머지 0.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음.

-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양성평등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예컨대 20대는 59.2%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60세 이상은 43.9%만이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20대 여성의 응답이 71.7%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남성의 응답은 41.7%로 가장 낮았음.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에서 높았음. 그러나 이 연령대의 남성의 응답은 17.3%이었으나, 여성은 18.3%가 응답하여 고령 여성의 부정적 응답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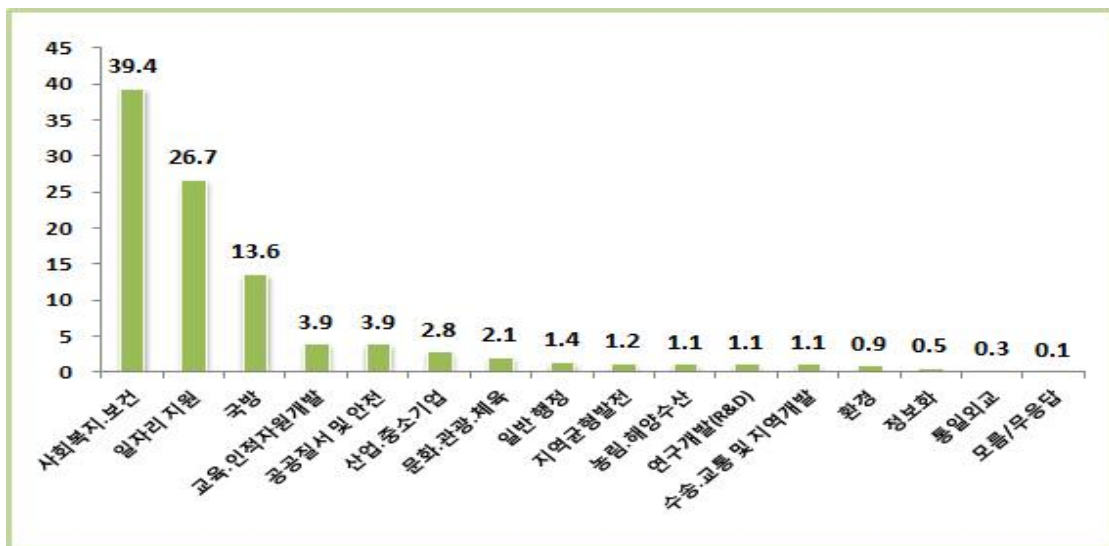


[그림 1] 남녀평등 국가예산 집행의 중요도

국민 10명 중 7명,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분야로 ‘사회복지·보건 및 일자리 분야’ 강조, 향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의 성평등 예산 적용을 위한 이슈 발굴 필요

- 아울러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물은 결과,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사회복지·보건(39.4%)’과 ‘일자리 지원(26.7%)’ 분야라고 응답하였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일한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응답율이 높았음.
- 이는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물어 본 남녀의 응답순위(사회복지·보건 분야 48.5%, 일자리 지원 분야 20.7%)와 동일하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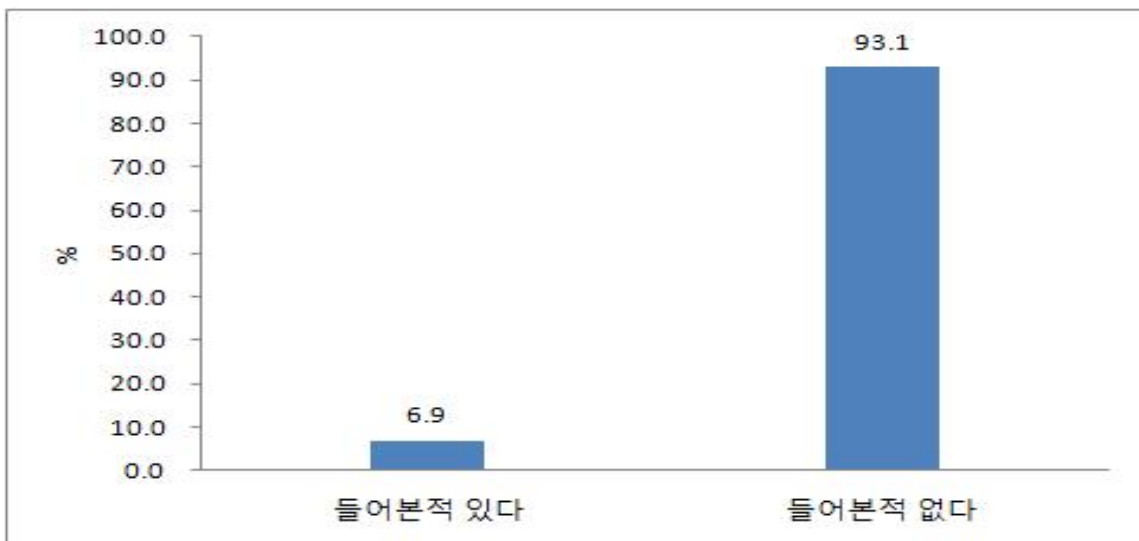


[그림 2]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가장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성인지예산제도 인지도 여전히 낮아, 향후 성인지예산제도의
국민체감도 제고 위한 제도적 개선과 대국민 홍보 확대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정부의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국민 10명 중 1명 미만(6.9%)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



[그림 3]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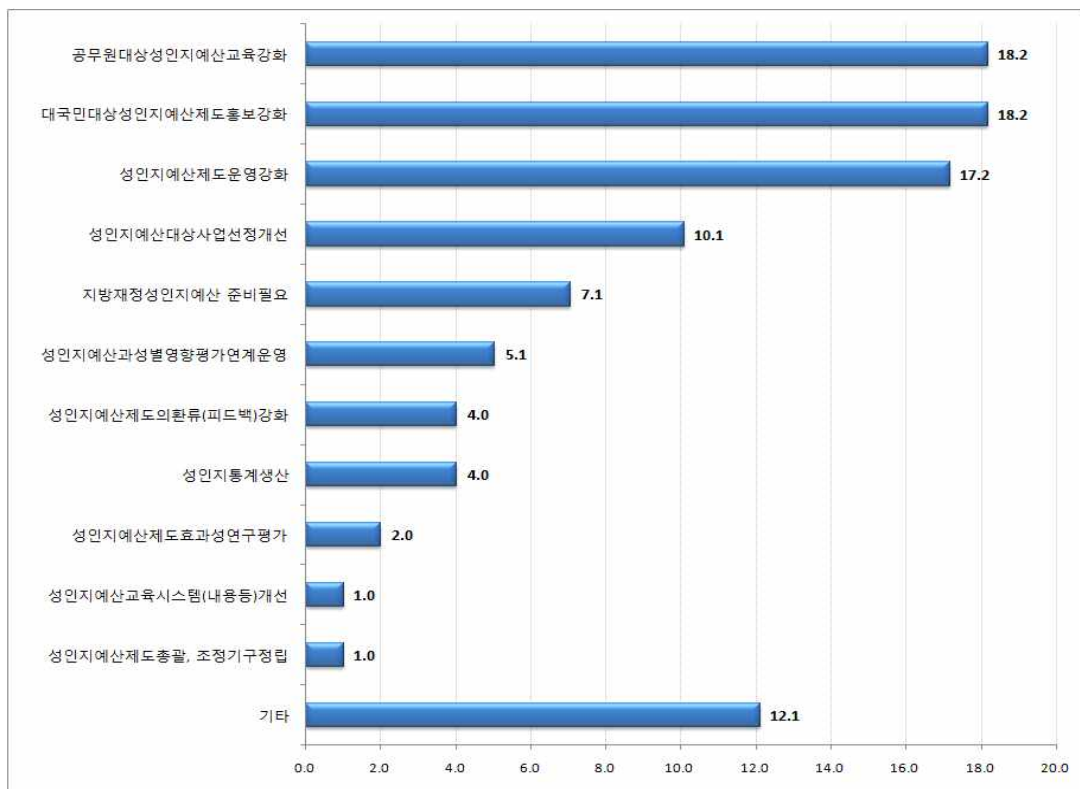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7.9%)이 여성(5.8%) 보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았음. 연령별로는 40대(9.3%), 50대(8.8%), 30대(6.4%), 20대(4.9%), 60세 이상(4.7%)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성별로 꼭 필요한 곳에 정부 예산이 편성 되어 집행되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성인지 전문가들은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의 최우선과제로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와 '대국민 대상
성인지예산제도 홍보 강화' 꼽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123명의 성인지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교육 강화', '대국민대상 성인지예산제도 홍보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외에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에서 돌봄, 안전 등과 같은 대국민생활에 밀접한 이슈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 적용 필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등이 제안되었음.

(단위: %)



[그림 4]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